

문서번호 한기평(평가정책)56-2022-4313
시행일자 2022년 06월 15일
수 신 한국전력기술(주) 대표
참 조 자금(재무)담당 부서장
제 목 무보증사채 신용평가서 송부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평소의 후의에 감사드립니다.
2. 귀사의 제5회 사모무보증사채 본평가 신용평가서를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제5회 사모무보증사채 신용평가서 1부. 끝.

한 국 기 업 평 가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김 기



신용평가서

한국전력기술(주) 귀중

교 부 번 호 : KCBR-2022-A0746-02
교 부 일 : 2022년 06월 15일

당사의 소정 기준과 절차에 의하여 평가한 무보증채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행회사	한국전력기술(주)	신용평가등급 
대표자	김성암	
발행채권명	제5회 사모무보증사채	
발행권면총액	금일천만원(₩10,000,000)	
발행일/만기일	2022.06/2027.06(예정)	
재무제표기준일	2021년 12월 31일	
등급평가일	2022년 06월 14일	
용도	무보증사채 발행용	
RATING OUTLOOK		

◆ 유의사항

- 평가대상 회사채의 발행조건 변경시 그 내용을 당사에 통지하고 신용평가서를 조정, 재발급 받아야 하며, 평가일 이후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미발행시 본 신용평가등급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신용평가서의 상기 용도 이외의 사용은 무효입니다.
- 본 신용평가서 상의 신용등급은 사후관리를 통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신용등급은 당사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 당사의 연간부도율, 신용등급변화표 및 평균누적부도율표는 첨부된 신용평가실적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확인 및 문의사항은 당사 평가기획실(TEL 368-563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신용평가서(교부번호: KCBR-2022-A0746-02)는 수요예측에 의한 채무증권의 발행조건이 확정되기 전 발행사의 발행예정계획을 고려한 신용평가를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향후 발행조건이 확정되면 신용평가서가 정정 발급될 수 있습니다.



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기범





한국전력기술(주)

평가일:2022.0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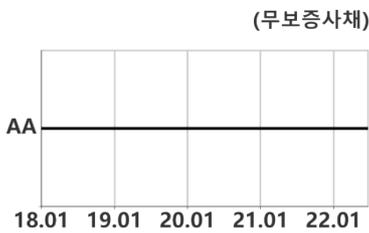
배인해 책임연구원
02-368-5388
ihbae@korearatings.com

최주욱 실장
02-368-5303
jwchoi@korearatings.com

유효등급

무보증사채 AA(S)

등급 추이



평가 개요

평가대상	종류	직전등급	현재등급
무보증사채	4	AA(안정적)	AA(안정적)
무보증사채	5	AA(안정적)	AA(안정적)

주요 재무지표

(단위: 억원, 배, %)

구분	2017(12)	2018(12)	2019(12)	2020(12)	2021(12)	2022(03)
매출액	4,902	4,337	4,486	4,317	4,331	929
EBIT(영업이익)	329	215	441	290	85	-49
EBITDA	526	459	732	534	334	10
당기순이익	325	129	264	202	165	-17
총자산	7,622	7,715	7,352	6,992	7,050	7,333
총차입금	391	300	9	16	18	281
순차입금	207	-565	-684	-614	-269	46
EBIT마진	6.7	5.0	9.8	6.7	2.0	-5.3
EBITDAMargin	10.7	10.6	16.3	12.4	7.7	1.1
EBITDA/금융비용	43.2	62.7	1,129.6	1,025.6	829.5	13.1
순차입금/EBITDA	0.4	-1.2	-0.9	-1.2	-0.8	1.2
부채비율	66.8	67.2	49.4	40.1	37.3	44.6
차입금의존도	5.1	3.9	0.1	0.2	0.3	3.8
적용재무제표	별도	별도	별도	별도	별도	별도

주) 1. K-IFRS기반 표준재무지표로 조정 재구성한 수치임
2. EBITDA = EBIT(영업이익)+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비

평정 논거

- 원자력부문의 독점적 지위, 한전계열기반 확보 등 사업안정성 매우 우수
- 매우 우수한 재무안정성 유지
- 외형 축소 가능성 존재하나, 시장지위 기반 우수한 재무안정성 유지 전망

회사 개요

- 1975년 설립되어, 1978년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로 편입된 코스피 상장업체
- 발전소 설계, 발전설비 O&M, 플랜트 건설사업 영위
- 2022년 3월말 기준 최대주주는 한국전력공사(지분율 65.8%)

최근 동향

수익성 저하되었으나, 투자부담 통제되면서 우수한 재무안정성 유지

채산성은 제한적이나 매출 규모는 큰 EPC 용역이 증가한 가운데, 소송비용, 경상개발비 등 일회성 비용 발생으로 2020년 이후 영업이익률이 하락하고 있으며, 2022년 1분기에는 영업적자를 기록하였다.

투자부담이 낮은 수준으로 통제되면서 2021년말까지는 실질적 무차입상태를 유지하였다. 최근 Heavy-tail 구조의 용역이 증가하면서 운전자본부담이 확대되어, 2022년 3월 말 기준 순차입금이 46억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부채비율 44.6%, 차입금의존도 3.8%, 순차입금/EBITDA 1.2배 등 전반적인 재무안정성은 우수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주요 이슈와 KR's view

한전 자회사로서의 지위 변동

한전 자회사로서의 지위는 동사 신용도를 지지하는 핵심요인이다. 한전 계열사를 고정거래처로 유지하고, 국내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를 독점적으로 수주할 수 있는 기반이기 때문이다.

최근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한전은 지난 5월 18일 동사의 지분 14.77%를 매각한다고 밝혔다. 매각 이후 한전의 지분율은 51%로, 한전 자회사로서의 지위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정책 기존 변화에 따른 사업영역 다각화 여부

신정부는 원전 확대를 통한 에너지믹스 변화를 제시하는 등 에너지 전환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정책 변화로 당초 예상보다 동사의 외형 감소 속도와 폭은 완만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가 불가결한 점을 감안할 때, 동사는 주력사업인 원자력발전소 설계 및 건설 외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등급 변동요인

발전소 설계부문의 기술우위와 계열 수주기반을 바탕으로 매우 우수한 사업 및 재무안정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에너지 정책에 따른 신규수주 불확실성이 내재하고 있어, 에너지 정책 방향과 신규수주에 대해 모니터링할 것이다.

상향 변동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지위가 현저히 제고되는 경우 ✓ 현재의 계열영업기반이 유지되는 가운데 비계열 사업영역의 확장으로 이익규모가 크게 증대되면서 재무적 완충력이 최고 수준에 달하는 경우
하향 변동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력공사 자회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 계열영업기반 저하, 본원적 기술우위 격차 축소, 시공부문의 대규모 손실 반복 등으로 사업기반이 크게 훼손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정 논거 세부 내용

■ 사업요인

원자력부문의 독점적 지위, 계열 수주기반 등 사업안정성 매우 우수

- 국내 원자력발전소 설계시장 내 독점적 사업지위 보유
 - 1978년 고리원자력 3,4호기 기술용역 계약자인 미국 Bechtel사의 기술 전수 대상으로 선정되어 원전 종합 설계 전체 과정에 참여하며 사업 본격화
 - 오랜 업력과 풍부한 사업경험, 지속적인 기술개발투자를 바탕으로 국내 원자력 발전소 및 화력발전소 설계사업 대부분을 담당
 - 원자력발전소 종합설계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원자로계통 설계능력 보유하는 등 기술자립도 높은 수준
- 계열 수주기반 확보
 - 한전 계열내 유일한 발전시설 설계 전문회사로,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를 고정거래처로 보유

영업실적 저하 추세

- 안정적인 매출 창출
 - 원자력발전소 종합설계(Architect Engineering)를 담당하는 원자력부문과 원자로계통설계(NSSSD: Nuclear Steam Supply System Design)를 담당하는 원자로부문에서 국내 신규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 독점적 수주, 연간 3,500억원 내외의 매출 창출
 - 화력/복합발전소, 기타 에너지 발전소 설계 및 자체 해외사업을 담당하는 에너지신사업부문은 2019년 이후 신보령 4,5,6호기 프로젝트, 풍력 및 바이오매스 등 기타 에너지 발전소 프로젝트 수주로 매출 증가
 - 다만, 국내 원자력발전소 신규 프로젝트 감소로 2018년 이후 매출액 4,400억원 내외 수준으로 소폭 감소

[사업부문별 매출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1.1Q	22.1Q
매출액	4,902	4,337	4,486	4,317	4,331	805	929
원자력	3,212	2,906	2,771	2,667	2,516	508	435
원자로	716	797	831	769	689	151	146
에너지신사업	974	634	884	881	1,127	146	348
매출비중							
원자력	65.5	67.0	61.8	61.8	58.1	63.1	46.8
원자로	14.6	18.4	18.5	17.8	15.9	18.7	15.8
에너지신사업	19.9	14.6	19.7	20.4	26.0	18.2	37.4

자료) 사업보고서, 분기검토보고서

- 2020년 이후 수익성 하락
 - 채산성은 제한적인 수준이나, 매출 규모는 큰 EPC 용역 매출 증가
 - 인건비 부담 가중되는 가운데 일회성 비용 발생으로 판관비 부담도 상승
 - ✓ 2020년 CIPREL사업 중개판결로 인한 손해배상비 발생(40억원)
 - ✓ 2021년 과제사업 비용 증가에 따른 경상개발비 증가로 판관비 부담 확대

[영업실적 추이(개별/별도 기준)]

(단위: 억원,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1.1Q	22.1Q
매출액	4,902	4,337	4,486	4,317	4,331	805	929
용역매출	4,825	4,295	4,331	4,222	3,789	801	683
공사매출	77	42	156	95	542	5	246
매출원가	3,381	2,969	3,245	3,087	3,233	579	739
용역원가	3,232	2,880	3,090	2,989	2,732	573	501
공사원가	149	89	155	98	501	6	238
판관비	1,192	1,153	801	940	1,013	222	240
영업이익	329	215	441	290	85	5	-49
매출원가율	69.0	68.5	72.3	71.5	74.6	71.8	79.5
용역매출	67.0	67.0	71.3	70.8	72.1	71.5	73.4
공사매출	193.9	214.6	99.9	102.6	92.4	121.5	96.5
판관비/매출액	24.3	26.6	17.8	21.8	23.4	27.6	25.8
영업이익률	6.7	5.0	9.8	6.7	2.0	0.6	-5.3

자료) 감사보고서, 분기검토보고서

■ 재무요인

전반적인 재무안정성 매우 우수

- 차입금 부담 낮은 수준
 - 영위사업 특성상 운전자본부담 및 CAPEX 투자 낮은 수준
 - 연간 1,000억원 내외의 OCF를 통해 운영 및 투자에 필요한 자금 충당→ 2018~2021년말까지 실질적 무차입상태 유지
 - 2021년 이후 대금지급이 Heavy-Tail 구조인 용역 수주 증가로 미청구공사 규모가 확대, 2022년 3월말 기준 순차입금 46억원 기록→주요 재무안정성 지표 저하되었으나, 부채비율 44.6%, 차입금의존도 3.8%, 순차입금/EBITDA 1.2배 등 여전히 우수한 수준 유지

[현금흐름 및 차입금 추이]

(단위: 억원, %, 배)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2.03
OCF(총영업현금흐름)	1,387	1,016	1,086	853	951	169
운전자본부담	762	206	815	701	1,114	451
NCF(순영업현금흐름)	626	810	271	152	-163	-282
자본적지출	124	79	58	70	26	3
배당금지급	42	84	53	118	107	
잉여현금흐름(FCF)	460	648	160	-36	-296	-286

총차입금	391	300	9	16	18	281
순차입금	207	-565	-684	-614	-269	46
부채비율	66.8	67.2	49.4	40.1	37.3	44.6
차입금의존도	5.1	3.9	0.1	0.2	0.3	3.8
순차입금/EBITDA	0.4	-1.2	-0.9	-1.2	-0.8	1.2

자료) 감사보고서, 분기검토보고서

■ **향후 전망**

외형은 감소할 전망이나, 우수한 재무구조 유지 전망

- 외형은 점진적 감소 예상
 - 신정부가 원전 확대를 통한 에너지 믹스 변화 제시, 작년말 예상보다 외형 감소 속도 및 폭은 완만해질 전망
 - 해외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 수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계 등으로 사업영역 다각화 노력 중으로, 다각화가 이루어져야 현 수준의 매출 유지 가능할 전망
- 우수한 재무구조 유지 전망
 - 기술력에 기반한 독점적 사업지위, 내부 비용절감 노력 등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성 유지 예상
 - 경상투자 중심의 투자정책 유지

■ **정부 지원가능성**

정부 지원가능성 미반영

- 한국전력 계열 내 중요도 낮은 수준
 - 한국전력 계열과의 영업적 연계도가 높지만, 사업영역이 한전계열의 발전 지원 업무로 상대적 중요도가 낮은 수준
 - 계열 내 발전 자회사 대비 규모가 미미

■ **유동성 분석**

유동성 대응능력 매우 우수

- 차입금 만기구조 단기화
 - 2022년 3월말 별도기준 총차입금 281억원의 98.1%인 276억원이 단기성차입금
 - 단기성차입금은 은행권 단기차입금 265억원, 유동성 리스부채 11억원으로 구성
- 현금성자산 등이 유동성 대응능력 뒷받침
 - 235억원 규모의 현금성자산 보유
 - 2022년 4월 경기도 용인시 구사옥 매각(양도금액 958억원)로 단기내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총239.5억원)유입 예정
 - 주주사인 한국전력공사의 우수한 대외신인도에 기반, 자본시장 접근 용이

[차입금 만기구조]

(단위: 억원, %)

구분	22년 3월말 잔액	기간별 만기도래 금액	
		1년	이후
단기차입금	265	265	
회사채	0	0	
리스부채	16	11	5
총차입금(B/S)	281	276	5
(비중)	100.0	98.1	1.9

주) 사채관련 조정계정 미반영
자료) 감사보고서 및 회사 제시

본 평가는 당사의 공시된 공기업 신용평가방법론(2021.03.25), 신용평가일반론(2021.07.20), 계열 신용평가방법론(2021.07.20)을 적용하였습니다. 공시된 신용평가방법론은 당사 홈페이지 www.rating.co.kr의 리서치/평가방법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평가시 모델등급은 평균평점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적용사유: 사업등급이 부도율평점 기준으로 a+ 등급 이상)

본 평가와 관련하여 기존과 상이한 신용평가방법 등을 적용하거나, 신용평가방법 등을 변경 적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가 본 건 신용평가에 이용한 중요자료는 감사보고서, 경영공시자료, 차입금현황,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기타 자료 등 입니다.
- 본 신용평가의 평가개시일은 2022.05.25이고, 계약체결일은 2022.05.23이며, 평가종료일은 2022.06.14입니다.
- 최근 2년간 요청인과 체결한 다른 신용평가계약은 없습니다. 당사는 신용평가일 현재 요청인의 다른 신용평가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신용평가일 기준 2년 이내 비평가용역계약 체결내역은 없습니다. 한편, 신용평가일 현재 수행중인 비평가용역은 없습니다.

[유의사항]

- (1) 한국기업평가(주)(이하 ‘당사’)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은 특정 금융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관한 분석 시점에서의 당사의 의견입니다. 또한, 당사가 제공하는 보고서 등의 제반 연구자료(이하 ‘간행물’)는 상기 특정 금융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관한 당사의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신용위험을 제외한 다른 위험(금리나 환율변동 등에 따른 시장가치 변동위험, 해당 증권의 유동성위험, 내부절차나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위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특히, 구조화금융상품을 포함한 당사의 신용등급은 법령 조세제도의 변경 등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등급 및 간행물에 포함된 당사의 의견은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관한 진술이 아니며, 당사 고유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대상의 미래 상환능력 등에 대해 예측한 독자적인 견해로서, 이러한 예측정보는 실제 결과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환경변화 및 당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 신용등급 산출 및 간행물 발간(이하 ‘신용평가업무 등’)에 이용되는 모든 정보는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함께 각종 공시자료 등의 자료원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당사는 제3자 요청 신용평가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등급 산출시 제출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있지 않으며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으로부터 수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 및 이들 대리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 하에 신용평가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신용평가업무 등 과정에서 이용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실사나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정보의 오류 및 사기, 허위에 따른 결과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3) 당사는 신용평가업무 등 과정에서 이용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분석자·분석도구 또는 기타요인에 의한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사는 신용등급 및 간행물의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증하거나 확약하지 않습니다. 당사 간행물의 모든 정보들은 신용평가업무 등에 필요한 주요한 판단 근거로서 제시된 것으로 평가대상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열된 것은 아니며,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당사 신용등급 및 간행물 상의 정보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및 결과에 대해서도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4) 당사는 금융상품의 매매와 관련한 조언을 제공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특정 유가증권의 매수, 매도 혹은 보유를 권유하는 정보가 아니며 시장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정보도 아닙니다. 당사의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그 내용으로 이용자의 투자결정을 대신할 수 없고 금융상품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은 스스로 투자대상의 위험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각자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만 합니다. 특히,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은 시장 전문기관을 일차적인 이용대상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개인투자자에 의한 이용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아 이를 이용하여 개인투자자 스스로 투자의 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외부전문기관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공시되지 않은 신용등급이나 제3자 요청 신용평가에 따라 산출된 신용등급의 경우 신용평가 요청인 이외에는 해당 신용등급을 믿고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 (5) 역외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시 소속국가의 법적·제도적 규제환경(외환통제, 출자·보증의 제한·금지, 법적지위 변경 등)은 중요한 고려항목 중 하나이나 이를 평가시점에 사전적으로 신용등급에 온전히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해당 역외기업의 신용등급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측정보 관련 유의사항]

본문 내 전망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평가시점에 있어 당사의 합리적인 분석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생성된 예측정보이며, 이는 분석대상업체의 핵심지표 관련 당사의 전망에 기초한 영업손익 추정과 분석대상업체가 제시한 사업계획 등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핵심지표의 변화 폭이 당초의 예상범위를 크게 이탈하고, 이러한 추세가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당사는 이를 반영한 Credit 검토를 토대로 신용등급 또는 등급전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측정보는 수급요인이나 환율, 금리 등과 같은 외생변수를 포함한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실제 결과 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측정보는 상기 <유의사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음은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8조 · 제44조 제6항 · 제46조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9 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내용이며, 평가의견의 일부입니다.

[장기 채무 신용등급 정의 및 회사채 부도율]

등급기호	등급의 정의	연간 부도율(%)		3년차 평균 누적부도율(%)	
		공식	광의	공식	광의
A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이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이다.	0.0	0.0	0.0	0.0
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으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0.0	0.0	0.0	0.0
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다.	0.0	0.0	0.26	0.99
BBB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있으나,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지급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0.0	0.0	1.53	5.11
BB	최소한의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나,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0.0	0.0	7.99	11.27
B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며, 그 안정성이 가변적이어서 매우 투기적이다.	4.76	4.76	15.54	17.63
C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0.0	0.0	14.66	26.73
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NA	NA	33.33	100.0
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합리적인 예측 범위내에서 채무불이행 발생이 불가피하다.	NA	NA	37.65	56.6
D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 주) 1. AA부터 B까지는 동일 등급내에서 상대적인 우열을 나타내기 위하여 "+" 또는 "-"의 기호를 부가할 수 있음.
- 2. 예비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앞에 "P"를, 조건부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앞에 "C"를, 미공시 등급의 경우 신용등급 앞에 "U"를 부기함.
- 3. 자산유동화증권 및 자산유동화대출(에) 관련된 유동화인수포자 및 기업신용평가 포함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뒤에 "(S)"를, 집합투자지구 중 펀드 수익증권 및 채권형펀드 신용위험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뒤에 "(H)"를 부기함.
- 4. 공식 부도율은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9 제3항 제2호의 부도 정의(원리금의 적시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업회생절차·파산절차의 개시가 있는 경우에 의해 산정된 부도율임).
- 5. 광의 부도율은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조 제2호에 의해 부도 이외에 기업구조조정 관련 법률 및 이에 준하는 할약에 따라 원리금감면, 출자전환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의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수반하면서 실질적으로 부도 방지 및 채무 경감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채무조정등을 포함하여 산정한 부도율임.
- 6. 연간 부도율은 신용평가실적상의 직전년 부도율로서 광의의 부도에 따른 부도율을 병기하고, 3년차 평균누적부도율은 평균누적부도율표의 3년차 평균누적부도율로서 광의의 부도에 따른 부도율을 병기함.
- 7. 연간 부도율은 2021년 기준이며, 평균누적부도율은 1998-2021년 기준임.

[단기 채무 신용등급 정의]

등급기호	등급의 정의
A1	단기적인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으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A2	단기적인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다.
A3	단기적인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있으나,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B	최소한의 단기적인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나, 그 안정성은 가변적이어서 투기적이다.
C	단기적인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의문시되며,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D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 주) 1. A2부터 B까지는 동일 등급내에서 상대적인 우열을 나타내기 위하여 "+" 또는 "-"의 기호를 부가할 수 있음.
- 2. 조건부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앞에 "P"를, 미공시 등급의 경우 신용등급 앞에 "U"를 부기함.
- 3. 자산유동화증권 및 자산유동화대출(에) 관련된 유동화인수포자 및 기업신용평가 포함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뒤에 "(S)"를, 집합투자지구 중 펀드 수익증권 및 채권형펀드 신용위험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뒤에 "(H)"를 부기함.

[장기 신용등급 정의]

등급기호	등급의 정의
AAA	최고 수준의 신용상태, 채무불이행 위험 거의 없음
AA	매우 우수한 신용상태, 채무불이행 위험 매우 낮음
A	우수한 신용상태, 채무불이행 위험 낮음
BBB	보통 수준의 신용상태, 채무불이행 위험 낮지만 변동성 내재
BB	투기적인 신용상태, 채무불이행 위험 증가 가능성 상존
B	매우 투기적인 신용상태, 채무불이행 위험 상존
CCC	불량한 신용상태, 채무불이행 위험 높음
CC	매우 불량한 신용상태, 채무불이행 위험 매우 높음
C	최악의 신용상태, 채무불이행 불가피
D	채무불이행 상태

- 주) 1. A2부터 B까지는 동일 등급내에서 상대적인 우열을 나타내기 위하여 "+" 또는 "-"의 기호를 부기할 수 있음.
- 2. 예비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앞에 "P"를, 조건부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앞에 "C"를, 미공시 등급의 경우 신용등급 앞에 "U"를 부기함.
- 3. 자산유동화증권 및 자산유동화대출(에) 관련된 유동화인수포자 및 기업신용평가 포함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뒤에 "(S)"를, 집합투자지구 중 펀드 수익증권 및 채권형펀드 신용위험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뒤에 "(H)"를 부기함.

[단기 신용등급 정의]

등급기호	등급의 정의
A1	매우 우수한 단기 신용상태, 단기적인 채무불이행 위험 매우 낮음
A2	우수한 단기 신용상태, 단기적인 채무불이행 위험 낮음
A3	보통 수준의 단기 신용상태, 단기적인 채무불이행 위험 낮지만 변동성 내재
B	불안정한 단기 신용상태, 단기적인 채무불이행 위험 상존
C	불량한 단기 신용상태, 단기적인 채무불이행 위험 높음
D	채무불이행 상태

- 주) 1. A2부터 B까지는 동일 등급내에서 상대적인 우열을 나타내기 위하여 "+" 또는 "-"의 기호를 부기할 수 있음.
- 2. 조건부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앞에 "P"를, 미공시 등급의 경우 신용등급 앞에 "U"를 부기함.
- 3. 자산유동화증권 및 자산유동화대출(에) 관련된 유동화인수포자 및 기업신용평가 포함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뒤에 "(S)"를, 집합투자지구 중 펀드 수익증권 및 채권형펀드 신용위험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뒤에 "(H)"를 부기함.

[장기 채무자 신용등급 정의]

등급기호	등급의 정의
AAA	채무상환능력이 최고 수준이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이다.
AA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우수하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A	채무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다.
BBB	채무상환능력은 있으나,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BB	최소한의 채무상환능력은 인정되나,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B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며, 그 안정성이 가변적이어서 매우 투기적이다.
C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합리적인 예측 범위내에서 채무불이행 발생이 불가피하다.
D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 주) 1. AA부터 B까지는 동일 등급내에서 상대적인 우열을 나타내기 위하여 "+" 또는 "-"의 기호를 부가할 수 있음.
 2. 예비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앞에 "P"를, 조건부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앞에 "C"를, 미공시 등급의 경우 신용등급 앞에 "U"를 부기함.
 3. 자산유동화증권 및 자산유동화대출(이에 관련된 유동화리스크포지 및 기업신용평가 포함)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뒤에 "(S)"를, 집합투자기구 중 펀드 수익증권 및 채권형펀드 신용위험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뒤에 "(H)"를 부기함

[단기 채무자 신용등급 정의]

등급기호	등급의 정의
A1	단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우수하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A2	단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다.
A3	단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은 있으나,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B	최소한의 단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은 인정되나, 그 안정성은 가변적이어서 투기적이다.
C	단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이 의문시되며,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D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 주) 1. A2부터 B까지는 동일 등급내에서 상대적인 우열을 나타내기 위하여 "+" 또는 "-"의 기호를 부가할 수 있음.
 2. 예비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앞에 "P"를, 조건부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앞에 "C"를, 미공시 등급의 경우 신용등급 앞에 "U"를 부기함.
 3. 자산유동화증권 및 자산유동화대출(이에 관련된 유동화리스크포지 및 기업신용평가 포함)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뒤에 "(S)"를, 집합투자기구 중 펀드 수익증권 및 채권형펀드 신용위험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뒤에 "(H)"를 부기함.

[펀드 수익증권 신용등급 정의]

등급기호	등급의 정의
AAA	투자원본의 공극적인 회수가능성이 최고 수준이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이다.
AA	투자원본의 공극적인 회수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A	투자원본의 공극적인 회수가능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다.
BBB	투자원본의 공극적인 회수가능성이 양호하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회수가능성이 저하될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BB	최소한의 투자원본 회수가능성은 인정되나, 장래의 안정성 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B	투자원본의 회수가능성이 가변적이어서 투기적이다.
CCC	투자원본의 회수가능성이 낮아 매우 투기적이다.
CC	투자원본의 회수가능성이 극히 낮다.
C	투자원본의 회수가능성이 극히 낮고 합리적인 예측 범위 내에서 투자원본의 회수가 불가능하다.

- 주) 1. AA부터 B까지는 동일 등급내에서 상대적인 우열을 나타내기 위하여 "+" 또는 "-"의 기호를 부가할 수 있음.
 2. 예비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앞에 "P"를, 조건부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앞에 "C"를, 미공시 등급의 경우 신용등급 앞에 "U"를 부기함.
 3. 자산유동화증권 및 자산유동화대출(이에 관련된 유동화리스크포지 및 기업신용평가 포함)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뒤에 "(S)"를, 집합투자기구 중 펀드 수익증권 및 채권형펀드 신용위험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뒤에 "(H)"를 부기함.

[채권형 펀드 신용위험 신용등급 정의]

등급기호	등급의 정의
AAA	펀드 편입자산의 평균적인 신용도가 최고 수준이다.
AA	펀드 편입자산의 평균적인 신용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다.
A	펀드 편입자산의 평균적인 신용도가 높은 수준이다.
BBB	펀드 편입자산의 평균적인 신용도가 양호한 수준이다.
BB	펀드 편입자산의 평균적인 신용도가 다소 투기적인 수준이다.
B	펀드 편입자산의 평균적인 신용도가 투기적인 수준이다.
CCC	펀드 편입자산의 평균적인 신용도가 매우 투기적인 수준이다.
CC	펀드 편입자산의 평균적인 신용도가 불량한 수준이다.
C	펀드 편입자산의 평균적인 신용도가 매우 불량한 수준이다.

- 주) 1. AA부터 B까지는 동일 등급내에서 상대적인 우열을 나타내기 위하여 "+" 또는 "-"의 기호를 부가할 수 있음.
 2. 조건부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앞에 "C"를, 미공시 등급의 경우 신용등급 앞에 "U"를 부기함.
 3. 자산유동화증권 및 자산유동화대출(이에 관련된 유동화리스크포지 및 기업신용평가 포함)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뒤에 "(S)"를, 집합투자기구 중 펀드 수익증권 및 채권형펀드 신용위험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뒤에 "(H)"를 부기함

[등급전망(Rating Outlook) 정의]

등급기호	등급의 정의
안정적(Stable)	향후 1-2년 내에 등급의 변동 가능성이 낮은 경우
긍정적(Positive)	향후 1-2년 내에 등급의 상향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부정적(Negative)	향후 1-2년 내에 등급의 하향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유동적(Evolving)	향후 1-2년 내에 등급이 상향, 하향, 유지될 수도 있어 등급의 변동방향이 불확실한 경우
없음(None)	Rating Watch 가 부여되었거나, C등급 또는 D등급인 경우

- 주) 1. Rating Outlook은 향후 1-2년 이내의 신용등급 방향성에 대한 평가시점에서의 전망으로서 당시의 신용등급체계와는 무관한 비등급 기호임.
 2. Rating Outlook은 신용등급 변경을 위한 절차상의 예고 아니므로 이후에 신용등급이 필연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님. 즉 Rating Outlook의 의견과 다르게 신용등급의 변경이 가능함.

[등급감시(Rating Watch) 정의]

등급기호	등급기호	등급의 정의
점진적 관찰(Evolving)	◇	등급을 변화시켜야 할 요인의 발생이 예상되지만, 이의 효과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점진적으로 그 영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긍정적 검토(Positive Review)	↑	등급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요인의 발생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
부정적 검토(Negative Review)	↓	등급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요인의 발생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

- 주) 1. Rating Watch는 최대 3개월 이내의 신용등급 방향성에 대하여 평가시점에서의 전망으로서 당시의 신용등급체계와는 무관한 비등급 기호임.
 2. Rating Watch는 신용등급 변경을 위한 절차상의 예고 아니므로 이후에 신용등급이 필연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님. 즉 Rating Watch의 의견과 다르게 신용등급의 변경이 가능함.

Copyright© 2022 : Korea Ratings.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대표전화: 368-5500 FAX: 368-5599.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의 저작권은 한국기업평가(주)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정보도 당사의 서면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제되거나 복사, 인용(또는 재인용), 배포될 수 없습니다.

한국기업평가(주)의 발행사에 대한 신용평가 적정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11)

1. 지정평가기관과 5%이상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가. 신용평가회사가 5%이상 출자한 법인

(2021.12.31 기준)

출자회사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주)이크레더블	8,161,770주	67.77%
코리아크레딧뷰로(주)	219,800주	10.99%

나. 신용평가회사에 5%이상 출자한 주주현황

(2021.12.31 기준)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Fitch Ratings Ltd	3,339,391주	73.55%

주) 최대주주 외 5%이상 주주현황은 최근 주주명부폐쇄기준으로 작성하였음

다. 신용평가회사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국내법인

(2021.12.31 기준)

계열회사명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주)이크레더블네트웍스	(주)이크레더블	3,000,000주	100%

2. 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중 발행사에 40%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해당사항 없음	-	-

상기내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2 년 월 일

신용평가사:

한국기업평가(주)

대표이사 김기



상기 신용평가회사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35 조 의11 제7항에 따른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2 년 월 일

발행사:

가

()

가

()

()



5

0.1

2021 12 31

2022 06 15

2027 06 15

2022 06 14

Stable

AA/Stable

(/)

) 가 (: 2022- -9401-1)
가

가 가

) 1) NICE 가() 가

2) ()가 3 ()

3) " " 335 11

4) ()

5) NICE 가() (www.nicerating.com) (02-2014-6289, 6325)

6)

| 2022- -9401-1

| 2022.06.14

NICE신용평가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영 대



□ 등급의 정의

【개별 신용등급별 정의】

장기신용등급	정의
A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인.
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BBB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지만 장래 환경변화로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BB	원리금 지급확실성에 당면 문제는 없지만 장래의 안정성 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B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며, 장래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단계에서 단언할 수 없음.
C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투기적임.
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위등급에 비해 불안요소가 더욱 많음.
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현단계에서는 장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D	원금 또는 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음.

주1: AA등급에서 CCC등급까지는 그 상대적 우열 정도에 따라 +, -기호를 첨부할 수 있음.

주2: 구조화금융 관련 평가의 경우 등급기호 뒤에 "(sf)"를 부기함.

□ 등급전망(Rating Outlook) : 등급의 방향성에 대한 당사의 의견을 기호로 표시한 것입니다.

- Positive : 중기적으로 등급의 상향가능성이 있음
- Negative : 중기적으로 등급의 하향가능성이 있음
- Stable : 등급의 중기적인 변동가능성이 낮음. 사업의 안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Developing : 불확실성이 높아 등급의 중기적인 변동 방향을 단정하기 어려움

□ 등급감시(Credit Watch) 기호 : 등급감시기호는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사건이나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여 기존등급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부여됩니다.

- ↑(상향) : 등급상향검토 ↓(하향) : 등급하향검토 ◆(불확실) : 불확실검토

□ 유의 사항

NICE신용평가(주)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은 특정 금융투자상품, 금융계약 또는 발행주체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대한 NICE신용평가(주) 고유의 평가기준에 따른 독자적인 의견입니다. NICE신용평가(주)는 신용위험을 미래의 채무불이행 및 손실 가능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NICE신용평가(주)의 신용등급은 금리나 환율변동 등에 따른 시장가치 변동위험, 해당 증권의 유동성위험, 내부절차나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위험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NICE신용평가(주)의 신용등급은 미래의 채무불이행 및 손실 가능성에 대한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으로 예측정보를 중심으로 분석, 평가되고 있으며, 예측정보는 예상치 못한 환경변화 등에 따라 실제 결과치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등급은 사실의 진술이 아니라, 미래의 신용위험에 대한 NICE신용평가(주)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특정 유가증권의 투자사결정(매매, 보유 등)을 권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신용등급은 정보이용자의 투자결정을 대신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이용자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에 정보이용자들은 각자 유가증권, 발행자, 보증기관 등에 대해 자체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NICE신용평가(주)는 신용등급 결정에 활용하고 보고서에 주요 판단근거로서 제시하는 정보를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회사 제시자료 및 각종 공시자료 등의 자료원으로부터 수집하여 분석, 인용하고 있으며, 발행주체로부터 제출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지 않았으며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없다는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NICE신용평가(주)는 자료원의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해 자체적인 실사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평가의 특성 및 자료원의 제한성, 인간적, 기계적 또는 기타 요인에 의한 오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NICE신용평가(주)는 신용등급 결정 시 활용된 또는 평가보고서에 주요 판단근거로서 제시된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도 그 정확성, 적합성 또는 충분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정보의 오류, 사기 및 허위 등과 관련한 어떠한 형태의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NICE신용평가(주)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사항을 제외하고 신용등급 및 평가보고서상 정보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및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NICE신용평가(주)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정보의 저작권은 NICE신용평가(주)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NICE신용평가(주)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본 정보의 무단 전재, 복사, 유포(재배포), 인용, 가공(재가공), 인쇄(제인쇄), 재판매 등 어떠한 형태든 저작권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금합니다.

한국전력기술(주) KEPCO Engineering & Construction Company, Inc

선임연구원 권준성 02.2014.6278 jskwon@nicerating.com 기업평가4실장 정성훈 02.2014.6210 shjung@nicerating.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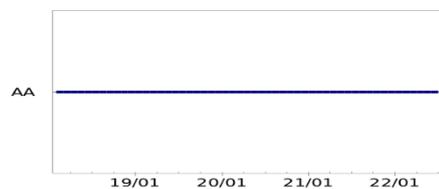
평가등급

AA/Stable	평가내역		유효등급	
	평가대상	제 5 회 선순위 무보증 사채	기업신용등급(원화/외화)	AA/Stable
	평가종류	본평가	무보증 채권	AA/Stable
	등급확정일	2022.06.14		

PROFILE

공기업 형태	준시장형 공기업
주주 지분율(%) (2022년 3월)	한국전력공사(65.77%)
설립근거 법규	상법

평가등급 추이



주요 재무지표

단위: 억원

회계기준 재무제표기준	K-IFRS 개별	K-IFRS 개별	K-IFRS 개별	K-IFRS 개별	K-IFRS 개별	K-IFRS 개별
구분	2017.12	2018.12	2019.12	2020.12	2021.12	2022.03
매출액	4,902	4,337	4,486	4,317	4,331	929
당기순이익	325	129	264	202	165	-17
EBITDA	526	459	732	534	334	10
잉여현금흐름	504	732	216	83	-189	-286
자산총계	7,622	7,715	7,352	6,992	7,050	7,333
총차입금	391	300	9	16	18	281
EBIT/매출액(%)	6.7	5.0	9.8	6.7	2.0	-5.3
EBITDA/금융비용(배)	256.2	62.7	1,129.6	1,025.6	829.5	13.1
총차입금/EBITDA(배)	0.7	0.7	0.0	0.0	0.1	7.1
부채비율(%)	66.8	67.2	49.4	40.1	37.3	44.6
순차입금의존도(%)	2.7	-7.3	-9.3	-8.8	-3.8	0.6

현금흐름표 중 이자, 배당수취, 법인세 관련은 영업현금흐름으로, 배당지급은 재무현금흐름으로 분류

평가 근거

- | | |
|------------------|--|
| 등 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원자력 발전설계시장 내 독점적 시장지위 및 양호한 대외경쟁력 한국전력공사 계열 내 안정적인 사업기반 기존 사옥의 매도계약 체결로 향후 매각대금 유입 전망 우수한 재무구조 보유 한전 계열사로서의 우수한 대외신인도 및 모기업의 직간접적 지원가능성 |
| 전 망
(Outlook)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발전설계업계 내 준독점적 시장지위 및 안정적인 계열 내 사업기반을 바탕으로 현 수준의 양호한 수익창출력 및 우수한 재무구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을 고려 |

평가등급

NICE신용평가(주)는 한국전력기술(주)(이하 '회사')의 상기 선순위 무보증 사채에 대한 신용등급을 AA/Stable로 평가한다.

평가등급 및 핵심논거 : AA

회사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2022년 3월 말 기준 지분율 65.77%)로서 국내외 원자력, 수·화력 발전소의 설계용역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는 발전 플랜트 설계엔지니어링 전문기업이다.

국내 원자력 및 수화력 발전설계 등 엔지니어링 부문에서 독점적 기술력과 시장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회사는 1998년 8월 상업운전을 개시한 울진 3호기의 설계를 기점으로 현재까지 국내 원전의 설계용역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보유 인력 및 기술 수준, 풍부한 설계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에도 국내 원전 설계용역 부문에서 독점적인 시장지위를 유지해 나갈 전망이다.

한국전력공사 계열 내 사업기반은 안정적이다. 관계사(한국전력공사 및 6개 발전 자회사 등)에 대한 매출이 전체 매출의 약 70% 내외를 차지하는 등 한국전력 계열 내 사업기반이 안정적이다. 국내 원자력 및 수·화력 발전사업의 발주처가 대부분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한국전력공사 계열 내 안정적인 사업기반은 회사에게 유리한 경쟁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정책 등으로 원자력 부문 매출이 하락세를 보이나, 환경·신재생 에너지 부문의 실적 확대가 이를 상쇄하고 있다. 2020년 중 신한울 3,4호기 설계용역이 잠정 중지되는 등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의 영향으로 원자력 부문의 매출이 2017년 3,928억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급부로 풍력발전소 건설 EPC사업, 바이오매스발전소 설계용역 등 환경·신재생 에너지 부문의 수주가 확대되면서 원자력 부문의 하락세를 상쇄하고 총매출은 유지되었다. 신정부의 정책이 기존의 탈원전에서 벗어나 원전 친화적인 기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회사의 국내 시장 내 독점적인 시장 지위에 기반하여 O&M(Operations & Maintenance, 유지 보수 관련 설계 등) 부문에서 일정 수준의 매출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중단기적으로 매출이 현 수준에서 저하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우수한 재무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2022년 3월 말 부채비율 44.6%, 순차입금의존도 0.6%로, 재무안정성 지표는 매우 우수하다. 2015년 5월 사옥신축 투자(총투자액 3,614억원)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후 제한적인 CAPEX 투자부담과 현금흐름 개선을 바탕으로 차입부담이 완화되었다. 한편, 2022년 4월 기존 용인사옥의 매각 계약이 체결되면서, 향후 매각 대금이 순차적으로 유입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의 현금흐름 및 재무안정성은 우수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등급전망 : Stable

국내 발전설계업계 내 준독점적 시장지위 및 안정적인 계열 내 사업기반을 바탕으로 현 수준의 양호한 수익창출력 및 우수한 재무구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을 고려한 것이다.

주요 모니터링 및 등급변동 검토요인

회사의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지위의 유지 여부와 이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및 정부의 지원 가능성 변화 여부, 국내 원자력발전소 설계 부문 내 독점적 시장지위의 여부 등이 주요 모니터링 요인이다.

구분	등급변동 검토 요인
상향조정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의 정책 변화 등으로 회사의 법적지위, 정책적 중요성이 현저히 강화되는 경우
하향조정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전력공사 자회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국내 원자력발전소 설계 부문 내 경쟁구조 변화로 시장지위가 현저히 저하되는 경우

주: 등급변동 검토는 상기 요인·지표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기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됨.

회사개요

회사는 1975년 10월 1일 설립된 한국전력공사(2022년 3월말 기준 한국전력공사가 65.77% 지분 보유) 계열사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 중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회사는 발전 플랜트 설계엔지니어링 전문기업으로 국내외 원자력, 수·화력 발전소의 설계용역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플랜트 EPC사업과 운영 및 유지보수(O&M: Operation & Maintenance) 사업,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등을 병행하고 있다. 회사는 주력 분야인 원자력 발전소 설계와 관련하여 OPR 1000, APR 1400 등의 한국형 자체 설계 노형을 보유하고, 신한울 3,4호기, 신고리 5,6호기, UAE Barakah 원전 설계를 수행하고 있다.

사업위험

국내 원자력 발전설계시장 내 독점적 시장지위 및 양호한 대외경쟁력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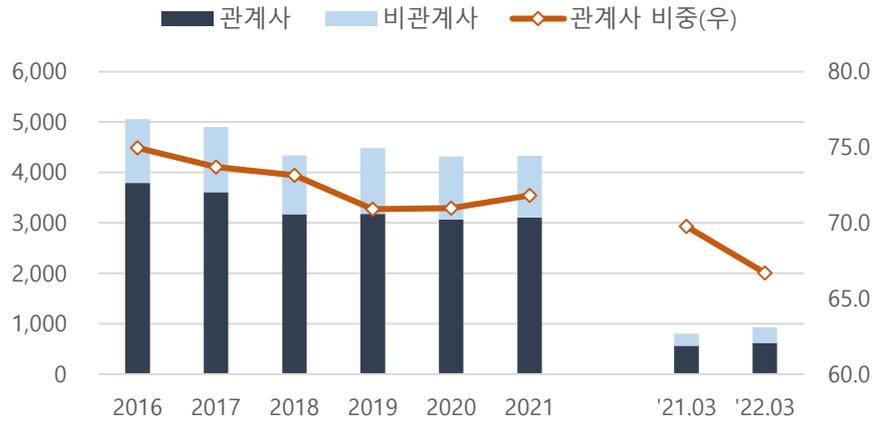
회사는 국내 주력 노형인 가압경수로형(PWR)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설계기술의 자립을 통해, OPR1000, APR1400 등의 우리나라 자체 노형을 개발하는 등 우수한 기술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주력사업인 원자력 발전설비 관련 설계용역 분야에 있어 국내 독점적인 시장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AREVA, Toshiba-Westinghouse, GE 등의 소수 거대 원자력 그룹들만이 각 사별 고유 노형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호한 대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회사는 화력 발전설비 분야에 있어서도 자체적인 표준설계를 개발하는 등 기술경쟁력이 양호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발전설비 설계 위주의 사업에서 탈피하여 국내외 EPC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전력 계열 내 안정적인 사업기반 보유

2021년 회사의 발주처별 매출구성을 살펴 보면, 관계사(한국전력공사 및 6개 발전 자회사 등)에 대한 매출이 전체 매출의 71.8%(최근 5년 평균 72.1%)를 차지하는 등 한국전력 계열 내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보유한 모습이다. 국내 원자력 및 수·화력 발전사업의 발주처가 대부분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한국전력공사 계열 내 안정적인 사업기반은 회사에게 유리한 경쟁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 그림 | 발주처별 매출구성 및 추이

단위: 억원, %



자료: 회사 공시자료 바탕으로 NICE신용평가 재구성

정부 정책 등으로 원자력 부문 실적은 하락세를 보이거나, 환경·신재생 에너지 부문 성장으로 매출 유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응하여 발주처인 한국수력원자력이 2020년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설계용역 진행을 중단하는 등의 영향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수주가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원자력 부문의 매출이 2017년 3,928억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반대급부로 풍력발전소 건설 EPC사업, 바이오매스발전소 설계용역 등 환경·신재생 에너지 부문의 수주가 확대되면서 원자력 부문의 하락을 일정 부분 상쇄하고 총매출은 유지되었다. 신정부의 정책이 기존의 탈원전에서 벗어나 원전 친화적인 기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회사의 국내 시장 내 독점적인 시장지위에 기반하여 O&M(Operations & Maintenance, 유지 보수 관련 설계 등) 부문에서 일정 수준의 매출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중단기적으로 매출이 현 수준에서 저하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 표 | 부문별 매출 추이

단위: 억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1.03	'22.03
원자력	3,928	3,703	3,599	3,424	3,200	657	582
국내	2,306	2,687	2,853	2,767	2,595	533	482
해외	1,622	1,015	746	657	606	124	100
석탄화력+복합	852	527	676	668	684	122	160
기타	122	108	211	225	447	26	188
합계	4,902	4,337	4,486	4,317	4,331	805	929
<구성비(>							
원자력	80.1	85.4	80.2	79.3	73.9	81.6	62.6
석탄화력+복합	17.4	12.1	15.1	15.5	15.8	15.1	17.2
기타	2.5	2.5	4.7	5.2	10.3	3.2	20.2

자료: 회사 공시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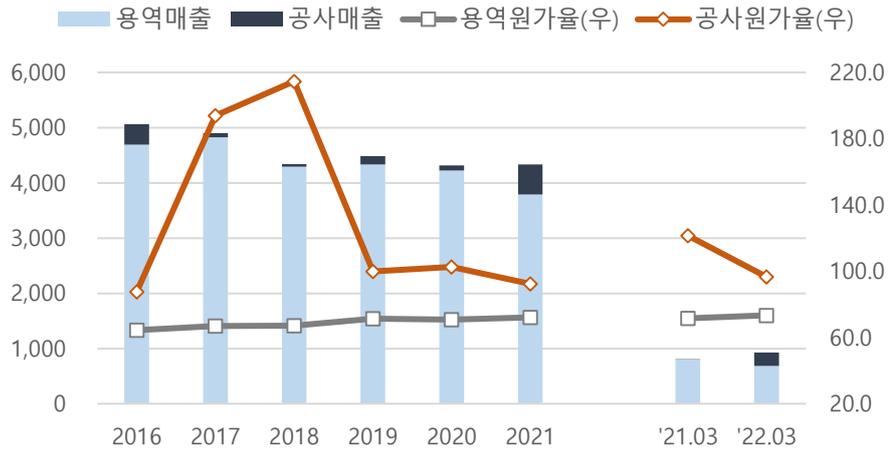
주: 환경·신재생 부문은 기타에 포함

설계용역 비중 감소로 영업수익성 저하되었으나, 여전히 양호한 수준

최근 계열 내 발주 설계용역 계약이 감소하고, 해외영업강화 과정에서 EPC부문으로 사업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설계용역의 경우 채산성이 우수한 수준이고 매출원가율이 70% 내외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용역수익 대비 상대적으로 채산성이 열위한 공사수익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전반적인 영업수익성이 저하되었다.

| 그림 | 유형별 매출액, 원가율 추이

단위: 억원, %



자료: 회사 공시자료 바탕으로 NICE신용평가 재구성

2018년 Barakah가동원전LEA(장기엔지니어링지원)용역(총도금액 4,300억원, 용역제공기간 2018.1~2031.1)을 수주하는 등 O&M 사업영역 확대에 기반한 매출 확보 및 원가율 개선을 바탕으로, 회사의 EBITDA 규모가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전 정부의 탈원전 등 에너지정책기조에 기인한 신규 원전 설계용역수익 및 전체 매출 감소에 따른 고정비 부담 증가가 회사의 EBITDA 창출력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 매출원가율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수익성은 감소하였지만 2021년 기준 EBITDA/매출액이 7.7%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영업수익성이 양호한 가운데, 회사가 지속적으로 원전사후관리 사업 등으로 매출규모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바, 중단기적으로 현 수준의 영업수익성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표 | 영업수익성 추이

단위: 억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1.03	'22.03
매출액	4,902	4,337	4,486	4,317	4,331	805	929
매출원가	3,381	2,969	3,245	3,087	3,233	579	739
판관비	1,192	1,153	801	940	1,013	222	240
EBIT	329	215	441	290	85	5	-49
EBITDA	526	459	732	534	334	67	10
EBIT/매출액(%)	6.7	5.0	9.8	6.7	2.0	0.6	-5.3
EBITDA/매출액(%)	10.7	10.6	16.3	12.4	7.7	8.3	1.1

자료: 회사 공시자료

재무위험

전반적인 현금흐름은 우수한 수준이나 최근 운전자금 부담 확대

2013년 이후 영업수익성 저하로 EBITDA 창출 규모가 이전 대비 축소된 가운데, 2012년 10월 ~2015년 5월 사옥신축투자 관련 대규모 자금소요 및 배당금 부담 등이 발생함에 따라 대규모 잉여현금부족이 발생하였다. 회사의 2012~15년 합산 CAPEX 및 배당금 부담은 각각 3,421억원, 1,925억원으로, 영업현금창출능력을 크게 상회하였다. 이에 따라 순차입금이 2011년말 (-)3,723억원에서 2016년말 703억원까지 확대된 바 있다.

그러나, 2015년 5월 사옥신축 투자가 마무리되고, 2017년 이후 영업현금흐름 개선을 바탕으로 차입부담이 완화되었다. 회사의 운전자금 변동은 높은 수준으로, 배당금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2021년 이후 운전자금 부담 확대되면서 잉여현금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추가적인 CAPEX 투자부담이 감소하였고, 2022년 4월 기준 용인 사옥의 매각 계약이 체결되면서 향후 약 950억원에 해당하는 매각 대금이 순차적으로 유입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의 현금흐름 및 재무안정성은 우수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 표 | 주요 현금흐름 추이

단위: 억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1.03	'22.03
EBITDA	526	459	732	534	334	67	10
운전자금 증감	-262	38	-30	-25	-114	247	-327
기타영업활동현금흐름	218	386	-81	-110	-341	-89	-116
영업현금흐름	626	810	271	152	-163	388	-282
자본적지출	-122	-78	-55	-69	-26	-5	-3
잉여현금흐름	504	732	216	83	-189	383	-286
배당금 지급	-42	-84	-53	-118	-107	-	-
자금조달전현금흐름	462	648	163	-35	-296	383	-286

자료: 회사 공시자료

견조한 재무안정성 및 우수한 재무적 융통성 보유

2022년 3월 말 부채비율 44.6%, 순차입금의존도 0.6%로, 재무안정성 지표는 매우 우수하다. 2021년 이전까지 실질적인 무차입 기조를 유지하였다가, 2022년에는 운전자금 부담으로 인한 외부자금조달로 차입금이 281억원으로 증가하였다. 다만,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유동성 및 유형자산 등의 자체적인 재무여력 및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이자 공공기관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대외신인도 등을 고려하면, 회사의 재무적 융통성은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 표 | 재무안정성 지표 추이

단위: 억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2.03
자산	7,622	7,715	7,352	6,992	7,050	7,333
부채	3,051	3,101	2,430	2,002	1,916	2,263
자기자본	4,570	4,614	4,922	4,991	5,135	5,070
총차입금	391	300	9	16	18	281
(현금성자산)	184	865	693	630	287	235
순차입금	207	-565	-684	-614	-269	46
부채비율(%)	66.8	67.2	49.4	40.1	37.3	44.6
차입금의존도(%)	5.1	3.9	0.1	0.2	0.3	3.8
순차입금의존도(%)	2.7	-7.3	-9.3	-8.8	-3.8	0.6

자료: 회사 공시자료

유동성 분석

2022년 3월 말 기준 차입금 281 억원 중 단기성차입금은 275 억원으로, 보유현금성자산 235 억원을 소폭 상회한다. 금융기관 잔여 약정한도 878 억원, 본사 건물 등 보유 유형 자산(장부가액 약 2,670 억원) 및 기존 용인사옥 매각을 통한 자금조달여력 등을 고려 시, 회사의 단기적인 유동성 위험은 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방법론 적용

본 평가에 적용된 주요 평가방법론은 공공부문-GRE 총론(2020), 공공부문-비금융 GRE(2020), 산업별 평가방법론-총론 1(2022), 산업별 평가방법론-총론 2(2022), 신용평가일반론이다. 당사의 공시된 신용평가방법론은 "www.nicerating.com > 리서치/평가방법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 본 건 신용평가등급 산정에 이용한 중요자료는 감사보고서, 경영공시자료, 차입금현황 및 기타 제공받은 자료 등입니다.

■ 회사채 개별 신용등급별 정의 및 부도율

기준년도: 1998 ~ 2021 년, 단위: %

회사채 신용등급	정의	연간부도율		평균누적부도율	
		협의	광의	협의	광의
A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0.00	0.00	0.00	0.00
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0.00	0.00	0.00	0.00
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0.00	0.00	0.46	1.72
BBB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지만 장래 환경변화로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0.00	0.00	1.67	5.18
BB	원리금 지급확실성에 당면 문제는 없지만 장래의 안정성 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0.00	0.00	7.07	10.52
B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며, 장래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단계에서 단언할 수 없음.	0.00	0.00	15.56	18.98
C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투기적임.	0.00	0.00	12.34	21.67
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위등급에 비해 불안요소가 더욱 많음.	-	-	13.43	34.91
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현단계에서는 장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	41.59	36.84
D	원금 또는 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음.	-	-	-	-

주1: AA등급에서 CCC등급까지는 그 상대적 우열 정도에 따라 +, -기호를 첨부할 수 있음. 주2: 구조화금융 관련 평가의 경우 등급기호 뒤에 "(sf)"를 부기함. 주3: 연간부도율은 2021년 기준이며, 평균누적부도율은 1998~2021년을 기준으로 한 3년차 평균누적부도율임. 주4: 협의 부도율은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9 제3항 제2호의 부도 정의에 의해 산정한 부도율임. 주5: 광의 부도율은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31> 제3조 제1항 제9호의 광의의 부도 정의에 의해 산정한 부도율임.

■ 기업신용등급(ICR) 개별 신용등급별 정의

기업신용등급	정의
AAA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AA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A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이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BBB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은 인정되지만 장래 환경변화로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BB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에 당면 문제는 없지만 장래의 안정성 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B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며, 장래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단계에서 단언할 수 없음.
C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투기적임.
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위등급에 비해 불안요소가 더욱 많음.
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현단계에서는 장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D	채무 지급불능상태에 있음.

주1: AA등급에서 CCC등급까지는 그 상대적 우열 정도에 따라 +, -기호를 첨부할 수 있음. 주2: 구조화금융 관련 평가의 경우 등급기호 뒤에 "(sf)"를 부기함.

■ 단기등급 개별 신용등급별 정의

단기신용등급	정의
A1	적기상환능력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A2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A1 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A3	적기상환능력이 양호하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B	적기상환능력은 인정되지만 투기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
C	적기상환능력이 의문시됨.
D	지급불능상태에 있음.

주1: A2등급에서 B등급까지는 그 상대적 우열 정도에 따라 +, -기호를 첨부할 수 있음. 주2: 구조화금융 관련 평가의 경우 등급기호 뒤에 "(sf)"를 부기함.

○ 유의사항

NICE신용평가사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은 특정 금융투자상품, 금융계약 또는 발행주체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대한 NICE신용평가사 고유의 평가기준에 따른 독자적인 의견이며, NICE신용평가사가 외부에 제공하는 보고서 및 연구자료(이하 "발간물")는 상대적인 신용위험 현황 및 전망에 대한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NICE신용평가사는 신용위험을 미래의 채무불이행 및 손실 가능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NICE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과 발간물은 금리나 환율변동 등에 따른 시장가치 변동위험, 해당 증권의 유동성위험, 내부절차나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위험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NICE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과 발간물은 미래의 채무불이행 및 손실 가능성에 대한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으로 예측정보를 중심으로 분석, 평가되고 있으며, 예측정보는 예상치 못한 환경변화 등에 따라 실제 결과치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등급과 발간물은 사실의 진술이 아니라, 미래의 신용위험에 대한 NICE신용평가사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특정 유가증권의 투자사결정(매매, 보유 등)을 권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신용등급과 발간물은 정보이용자의 투자결정을 대신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이용자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에 정보이용자들은 각자 유가증권, 발행자, 보증기관 등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과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개인투자자의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NICE신용평가사는 신용등급 결정에 활용하고 발간물에 주요 판단근거로서 제시하는 정보를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회사 제시자료 및 각종 공시자료 등의 자료원으로부터 수집하여 분석, 인용하고 있으며, 발행주체로부터 제출 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지 않았으며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없다는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NICE신용평가사는 신용평가 대상인 발행주체와 그의 대리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NICE신용평가사는 자료원의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해 자체적인 실사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평가의 특성 및 자료원의 제한성, 인간적, 기계적 또는 기타 요인에 의한 오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NICE신용평가사는 신용등급 결정 시 활용된 또는 발간물에 주요 판단근거로서 제시된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도 그 정확성, 적합성 또는 충분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정보의 오류, 사기 및 허위, 미제공 등과 관련한 어떠한 형태의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NICE신용평가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사항을 제외하고 신용등급 및 발간물 정보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및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NICE신용평가사에서 작성한 발간물에 수록된 모든 정보의 저작권은 NICE신용평가사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NICE신용평가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본 정보의 무단 전재, 복사, 유포(재배포), 인용, 가공(재가공), 인쇄(재인쇄), 재판매 등 어떠한 형태든 저작권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금합니다.

역외기업 및 이와 관련된 유가증권에 대한 신용평가의 경우, 역외기업이 속한 국가의 위험이 향후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신용등급에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신용등급을 이용하는 데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위험으로는 외환, 외국인 투자자, 수출입 무역제도, 금융 등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규제 및 그 변화가 있습니다.

본 신용평가의 평가개시일은 2022.06.08 이고, 계약체결일은 2022.05.23 이며, 평가완료일은 2022.06.13 입니다.

최근 2년간 발행인과 체결한 다른 신용평가용역 건수 및 총액은 각각 0건, 0.0백만원입니다. NICE신용평가사는 평가완료일 현재 발행인의 다른 신용평가 용역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발행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최근 2년간 발행인과 체결한 비신용평가용역계약 체결 건수 및 금액은 0건, 0.0백만원입니다. NICE신용평가사는 평가완료일 현재 발행인의 다른 비신용평가 용역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NICE신용평가(주)의 신용평가실적서 등 연간 부도율

(단위: 개, %)

연도별 등급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분기	
	부도 업체수	부도율	부도 업체수	부도율	부도 업체수	부도율	부도 업체수	부도율	부도 업체수	부도율	부도 업체수	부도율	부도 업체수	부도율	부도 업체수	부도율	부도 업체수	부도율	부도 업체수	부도율	부도 업체수	부도율
AAA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AA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A	1	0.85	0	0.00	1	0.93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BBB	1	2.33	2	4.26	1	2.38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BB	2	13.33	1	4.17	2	7.41	2	6.45	1	3.55	0	0.00	0	0.00	1	5.88	0	0.00	0	0.00	0	0.00
B	1	12.50	0	0.00	0	0.00	2	14.29	0	0.00	0	0.00	0	0.00	2	12.50	1	5.26	0	0.00	0	0.00
CCC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2	33.33	0	0.00	0	0.00	0	0.00
CC	0	-	0	-	1	50.00	0	0.00	0	0.00	0	0.00	0	-	0	-	0	-	0	-	0	-
C	2	66.67	1	50.00	0	-	0	-	0	-	1	100.00	0	-	0	0.00	0	-	0	-	0	-
투자등급	2	0.63	2	0.61	2	0.59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투기등급	5	15.63	2	5.71	3	6.52	5	9.80	1	2.44	1	2.44	0	0.00	5	12.50	1	2.27	0	0.00	0	0.00
전체	7	2.02	4	1.10	5	1.30	5	1.27	1	0.26	1	0.27	0	0.00	5	1.35	1	0.26	0	0.00	0	0.00
연초신용등급 보유업체수	347		362		385		393		384		372		369		371		380		430		462	

평균누적부도율표 (1998년 ~ 2021년)

구분	평균누적부도율표 (1998년 ~ 2021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11년차	12년차	13년차	14년차	15년차	16년차	17년차	18년차	19년차	20년차	21년차	22년차	23년차
AAA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AA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A	0.10	0.25	0.46	0.75	0.99	1.12	1.26	1.26	1.26	1.26	1.26	1.26	1.26	1.26	1.41	1.58	1.58	1.58	1.58	1.58	1.58	1.58	1.58
BBB	0.63	1.27	1.67	2.08	2.33	2.41	2.58	2.67	2.67	2.67	2.87	3.07	3.38	3.60	3.83	4.08	4.35	4.51	4.51	4.51	4.51	4.51	4.51
BB	3.38	5.56	7.07	8.04	8.60	9.04	9.04	9.20	9.53	9.53	9.71	9.89	10.08	10.28	10.48	10.48	10.48	10.48	10.48	10.48	10.48	10.48	10.48
B이하	9.16	13.59	16.24	17.14	17.52	17.71	17.71	17.92	18.14	18.36	18.36	18.36	18.36	18.36	18.36	18.36	18.36	18.36	18.36	18.36	18.36	18.36	18.36
투자	0.16	0.35	0.52	0.72	0.86	0.93	1.03	1.05	1.05	1.12	1.19	1.31	1.40	1.55	1.71	1.84	1.91	1.91	1.91	1.91	1.91	1.91	1.91
투기	5.75	8.92	10.93	11.87	12.35	12.68	12.68	12.86	13.15	13.24	13.35	13.45	13.56	13.68	13.82	13.82	13.82	13.82	13.82	13.82	13.82	13.82	13.82
전체	1.15	1.89	2.41	2.75	2.97	3.09	3.17	3.23	3.30	3.37	3.45	3.57	3.66	3.81	3.97	4.05	4.10	4.10	4.10	4.10	4.10	4.10	4.10

(단위: %)

연간 신용등급변화표

구분	연말등급									
	AAA	AA	A	BBB	BB	B이하	D	WR		
연초 등급	AAA	96.11	0.22	0.00	0.00	0.00	0.00	3.68		
	AA	0.83	91.07	2.32	0.00	0.00	0.00	5.79		
	A	0.00	4.97	82.35	3.44	0.14	0.29	0.10		
	BBB	0.00	0.00	6.14	69.84	3.31	1.97	0.63		
	BB	0.00	0.00	0.13	4.03	63.72	5.20	3.38		
B이하	0.00	0.00	0.19	1.87	63.74	9.16	24.86			

(단위: %)

신용등급변화표 (대상기간 : 1998년~2021년)

3년 신용등급변화표

구분	3년차말 등급									
	AAA	AA	A	BBB	BB	B이하	D	WR		
연초 등급	AAA	88.81	0.75	0.00	0.00	0.00	0.00	10.45		
	AA	2.75	75.54	5.31	0.13	0.07	0.07	16.13		
	A	0.00	12.29	55.95	4.88	0.32	0.86	0.48		
	BBB	0.00	0.16	13.24	32.43	2.04	2.12	1.72		
	BB	0.00	0.15	0.58	7.70	15.41	3.63	7.70		
B이하	0.00	0.20	0.41	0.41	1.02	17.38	18.00			

(단위: %)

NICE신용평가(주)의 발행사에 대한 신용평가 적정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11)

1. 신용평가기관과 5% 이상 출자관계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

가. NICE신용평가(주)가 5% 이상 출자한 법인 현황

구분	소유주식 수	지분율
나이스피앤아이(주)	464,000주	76.8%

나. NICE신용평가(주)에 5% 이상 출자한 주주 현황

구분	소유주식 수	지분율
(주)NICE홀딩스	1,000,000주	100%

다. NICE신용평가(주)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

- (주)NICE홀딩스, NICE평가정보(주), (주)나이스디앤비, NICE신용정보(주), 나이스피앤아이(주), 나이스투자파트너스(주), 한국전자금융(주), 나이스씨엠에스(주), 나이스정보통신(주), KIS정보통신(주), 나이스디앤알(주), 나이스아이파트너스(주), 에스투비네트워크(주), 나이스인베스트먼트(주), 서울전자통신(주), (주)지니텍스, (주)나이스엘엠에스, (주)아이티엠반도체, SEO KYEONG ELECTRONICS LTD, SEOUL ELECTRONICS(M) SDN.BHD, SET VINA CO.,LTD, ITM-USA Inc., ITM Semiconductor Vietnam Co.,LTD, 나이스인프라(주), (주)리페이퍼, 나이스지니데이터(주), (주)오케이포스, (주)닥터스텍, (주)버드뷰, NICE페이먼트(주), NICE INFO VIETNAM, 나이스에이앤아이(주), NICE RETAIL VIETNAM, LMS VINA COMPANY, LMS SHENZHEN CO.,LTD, (주)모먼츠컴퍼니, 매그넘사모투자합자회사, NICE TECH CENTER VIETNAM LIMITED COMPANY, PT. IONPAY NETWORKS, 디오홀딩스(유), (주)아이티엔씨, LMS TRADING VIETNAM, 나이스파크둔산(주), NICE비즈니스플랫폼(주), NICE LMS Hungary Co.,LTD., (주)씨유엔, (주)제이티넷, 나이스디더블유알(주), (주)엔비모빌리티, 시큐어파킹코리아(주), 포스뱅크솔루션즈(주), (주)리얼허브

2. 제 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이 4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

출자(지배)회사	피출자(관계)회사	소유주식 수	지분율
(주)NICE홀딩스	NICE신용평가(주)	1,000,000주	100.0%
	KIS정보통신(주)	11,244,940주	91.3%
	나이스정보통신(주)	4,270,000주	42.7%
	나이스인베스트먼트(주)	2,585,000주	100.0%
	나이스아이피파트너스(주)	90,000주	50.0%
	나이스인프라(주)	180,987주	100.0%
	NICE평가정보(주)	26,102,906주	43.0%
	BBS GmbH(독일)	15,700,000주	40.0%
(주)나이스디앤비	NICE비즈니스플랫폼(주)	5,000,000주	80.0%
	나이스디앤알(주)	600,000주	66.0%
한국전자금융(주)	나이스씨엠에스(주)	690,218주	98.6%
	나이스파크둔산(주)	270,000주	90.0%
	시큐어파킹코리아(주)	126,020주	100.0%
	(주)리얼허브	40,000주	75.4%
나이스인베스트먼트(주)	(주)리페이퍼	309,720주	97.7%
	(주)나이스엘엠에스	10,365,605주	49.8%
서울전자통신(주)	SEO KYEONG ELECTRONICS LTD	774,000주	100.0%
	SEOUL ELECTRONICS(M) SDN.BHD	28,471,828주	100.0%
	SET VINA CO.,LTD	1좌	100.0%
(주)아이티엠반도체	ITM-USA Inc.	824,000주	100.0%
	ITM Semiconductor Vietnam Co.,LTD	-	100.0%
	(주)아이티엔씨	100,000주	100.0%
NICE평가정보(주)	NICE신용정보(주)	2,000,000주	100.0%
	NICE INFO VIETNAM	-	100.0%
	나이스지니데이터(주)	2,000,000주	100.0%
에스투비네트워크(주)	나이스아이피파트너스(주)	90,000주	50.0%
	나이스투자파트너스(주)	2,100,000주	100.0%
	나이스에이앤아이(주)	100,000주	100.0%
KIS정보통신(주)	(주)닥터스텍	42,000주	58.0%
	(주)버드뷰	34,544주	62.2%
	NICE RETAIL VIETNAM	-	50.0%
나이스정보통신(주)	NICE페이먼트(주)	14,000,000주	100.0%
	(주)씨유엔	20,000,000주	100.0%
	(주)제이티넷	50,181,399주	99.88%
	PT. IONPAY NETWORKS	7,340,992주	96.7%
	NICE TECH CENTER VIETNAM LIMITED COMPANY	-	100.0%
	NICE RETAIL VIETNAM	-	50.0%
(주)나이스엘엠에스	LMS VINA COMPANY	1좌	100.0%
	LMS SHENZHEN CO.,LTD	1좌	100.0%
	LMS TRADING VIETNAM	1좌	100.0%
	NICE LMS Hungary Co., LTD	1좌	100.0%
(주)버드뷰	(주)모먼츠컴퍼니	20,000주	72.0%
매그넘사모투자합자회사	디오홀딩스(유)	-	100.0%
나이스디더블유알(주)	(주)오케이포스	82,762주	56.4%
	포스뱅크솔루션즈(주)	140,000주	70.0%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기준임.

년 월 일

발행사

신용평가사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17(여의도동) 나이스그룹1사옥
N I C E 신 용 평 가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감 영 대



1 NICE 가()
 ("NICE 가 Code of Conduct" 3.8)
 (: , %, VAT)

()	가	-	-
	가	-	-
		-	-

* : 2021 05 2022 04

1 가
 (: , %, VAT)

()		-	-

* : 2021 05 2022 04

10%
 (: , %, VAT)

	NICE 가	NICE 가	NICE 가
()	-	0.0	48,549,613,740

* : 2021 05 2022 04

2022 06 14

N I C E 17() 1
 가

